

조선시대 月出山 遊山記의 개괄적 검토

사 경 화*

< 目 次 >

I. 머리말	5. 진주에서 영암까지의 여정을 담은 18세기 선비의 기록: 鄭栻의 「月出山錄」
II. 月出山 遊山記의 자료적 검토	6. 역사·문화체험의 공간, 월출산: 宋正熙의 「遊月出山記」
1. 월출산 유산기 현황	7. 위정척사 운동의 확산을 꿈꾸다: 宋秉璿의 「遊月出天冠山記」
2. 월출산 유산 경로	IV. 遊山記에 구현된 月出山の 이미지
III. 月出山 遊山記의 작품별 특징	1. 기암괴석의 산
1. 최초의 月出山 遊山記: 鄭詳의 「月出山遊山錄」	2. 문화재의 보고
2. 월출산이 품은 이름들의 寶庫: 許穆의 「月嶽記」	3. 전설을 품은 산
3. 탐승행위의 꺾진한 묘사: 金昌協의 「登月出山九井峰記」	V. 맺음말
4. 풍류를 위한 유람: 金兌一의 「遊月出山記」	

<국문 초록>

遊山記는 작가가 직접 산에 오른 체험을 기록한 문학이다. 그 안에는 작가가 탐승 과정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뿐만 아니라 작가의 세계관과 가치관, 해당 산과 지역에 대한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되었다. 하지만 그 연구 대상과 범위가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특정 산에 편중되

* 성신여자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 sanomi@daum.net

어 있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遊山記의 연구 범위 확대와 다양화를 1차적 목적으로 삼아 月出山 遊山記를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살펴본 월출산 유산기는 총 7편이다. 조선시대 최초의 월출산 유산기로서 임진왜란 이후 월출산의 면모를 보여주는 정상의 『月出山遊山錄』, 월출산에 존재했던 다양한 봉우리, 암자, 바위 등의 이름을 담고 있는 허목의 『月嶽記』, 구정봉에 오르는 과정만을 매우 실감나게 표현한 김창협(金昌協)의 『登月出山九井峯記』, 조선시대 관리의 유람 형태를 보여주는 김태일의 『遊月出山記』, 진주에서 월출산에 이르는 여정을 상세히 기록한 18세기 유일한 월출산 유산기인 정식의 『月出山錄』, 역사·문화 체험을 객관적으로 기록한 송정희의 『遊月出山記』, 위정척사운동의 확산을 바라는 선비의 소망이 녹아 있는 송병선의 『遊月出天冠山記』 등이 그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월출산 유산기는 산에 대한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며, 또 조선시대 유산의 다양한 양상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도 자료적 가치가 충분하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월출산 유산기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계속되고 더 나아가 호남 전체를 대상으로 한 유산기를 종합 검토하여 유산기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 하는 등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유산기의 가치가 높아지길 기대한다.

【주제어】 호남유산기, 월출산유산기, 유월출산기, 허목, 정식, 송병선

I. 머리말

遊山記¹⁾는 글자 그대로 산을 유람하고 난 후 쓴 기록으로, 遊山의 동기와 목적, 산을 오르는 과정, 산과 산 주변의 모습, 산에 얽힌 이야기 등을

1) 최초의 遊山記로 알려진 작품은 1243년 진정국사가 지은 「遊四佛山記」이지만 遊山記가 본격적으로 창작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이다. 고려시대 임춘의 「東行記」나 이규보의 「남행월일기」, 이곡의 「東行記」 같은 작품은 기행문이라는 공통점이 존재하지만 특정 산을 올라간 체험을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행체험을 기록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식의 발현은 조선시대에 꽃피었다고 할 수 있다. 이혜순 외, 『조선 중기의 遊山記 문학』, 집문당, 1997, pp.14-15

기록하고 산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담은 기행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遊山記는 작가가 직접 산에 오른 체험을 기록한 문학이기 때문에 매우 사실적이며 작가의 세계관을 살펴보기 좋은 기록이다. 또 산과 주변 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遊山記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그 연구 대상과 범위가 특정 산, 특히 영남권의 산들에 편중되어 있다.²⁾ 이는 遊山記의 주 창작 계층이 이황, 조식 등 영남의 문인이며, 이후 遊山이 수양의 실천 과정의 하나로 떠올랐을 때에도 영남 지역에 있는 산들이 가장 빈번하게 遊山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로 지리산, 가야산, 청량산 등 영남지역의 산을 대상으로 遊山記가 지어졌고 자연스럽게 연구 또한 이들 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³⁾

호남지역의 경우 15세기 진도로 유배 왔던 李貴가 금골산을 유람한 후 지은 「金骨山錄」을 시작으로 16세기 정지유, 임훈, 고경명 등이 무등산 유산기를 남겼고, 이후 20세기까지 호남 유산기 전통은 이어져 내려왔다.⁴⁾ 하지만 호남지역 遊山記는 그 자료가 영남지역 遊山記에 비해 매우 적고, 현존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정리도 부족하여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연구 성과가 있는 것은 無等山 遊山記 정도이다.⁵⁾ 따라서 본고에서는 遊山記 연구 범위 확대와 다양화를 1차적 목적으로

2) 강구율, 「靑京山 遊山記에 나타난 영남지식인의 자연인식」, 嶺南學 4, 2003.; 박영민, 「18세기 청량산 유산기 연구」, 『한자한문연구』1, 2005.; 최석기 외,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돌베개, 2007.; 정치영, 『옛 선비들의 청량산 유람록 I』, 민속원, 2007.; 강정화, 「智異山 遊山記에 나타난 조선조 지식인의 山水認識」, 『남명학연구』26, 2008.; 최석기, 「조선시대 士人들의 지리산유람을 통해 본 土意識: 15-16세기 지리산 유산기를 중심으로」, 『漢文學報』20, 2009.; 김종구, 「유산기에 나타난 유산과 독서의 상관성과 그 의미 -지리산과 청량산 유산기를 중심으로」, 『어문논총』51, 2009.; 정치영,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지리산 여행 연구」, 『대한지리학회지』44, 2009.; 노규호, 「한국 遊山記의 계보와 두타산 遊記의 미학」, 『우리문학연구』28, 2009.; 김종구, 「伽耶山 遊山記에 나타난 作家意識과 遊山文化의 유형」, 『어문논총』59, 2013.; 최은숙, 「청량산 기행가사에 나타난 유산체험의 양상과 의미」, 『嶺南學』64, 2018.

3) 김순영, 「무등산 遊山記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pp.2-3.

4) 자세한 내용은 김순영의 「호남 유산기의 자료적 특징」, 『국학연구론총』 제13집, pp.5-8. 참고

로 삼아 月出山 遊山記의 현황, 작품별 특징, 유산기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월출산의 이미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月出山 遊山記의 자료적 검토

1. 월출산 유산기 현황

월출산은 지리산, 천관산, 내장산, 능가산과 함께 호남 5대 명산에 속하며, 금강산과 설악산에 견줄 만한 경치를 가졌다하여 '남도의 작은 금강산', '남도의 설악산'으로도 불린다. 호남을 대표하는 산인만큼 많은 사람들이 월출산에 직접 올랐으며, 몇몇 문인들은 자신의 경험을 시문으로 남겨 놓았다. 이 가운데 본고에서 살펴볼 월출산 유산기 목록은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 月出山 遊山記>

작가	수록문집명	제목	유산시기 ⁶⁾
鄭 詳(1533~1607)	『滄洲遺稿』	「月出山遊山錄」	1604년
許 穆(1595~1682)	『記言』	「月嶽記」	1640년
金昌協(1651~1708)	『農巖集』	「登月出山九井峰記」	1675년
金兌一(1637~1702)	『蘆洲集』	「遊月出山記」	1691년
鄭 栻(1683~1746)	『明庵集』	「月出山錄」	1725년
宋正熙(1802~1881)	『南遊錄』	「遊月出山記」	1864년
宋秉璿(1836~1905)	『淵齋集』	「遊月出天冠山記」	1898년

5) 김대현, 「무등산 유산기에 대한 연구」, 「20세기 무등산 유산기 연구」; 김택진, 「나도규의 무등산 유산기와 자연의식」; 김순영, 「무등산 유산기 연구」, 「호남 유산기의 자료적 특징과 의의」; 이권재, 「제봉 고경명의 유서석록 연구」

6) 본고에서 살펴본 대부분의 遊山記는 도입부에서 자신의 유산시기를 밝히고 있으나 그 시기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작가의 연보, 다른 기록과의 비교 검토 등을 통해 검증하였다.

위의 목록은 19세기 이전 시기 작가가 직접 월출산에 오른 체험을 담은 기록 가운데, ‘~記’, ‘~錄’의 제목을 가지고 있으며, 온전히 월출산 유산의 내용을 담은 작품을 대상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하곤의 「남유록」처럼 전체 여행기 안에 월출산 유산의 경험이 일부 담겨 있는 기록은 제외하였다. 그리고 김순영의 연구에서 밝힌 월출산 유산기 목록⁷⁾을 참고하여 본고의 기준에 적합한 유산기만을 추출하고, 한국문집총간과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소장 도서를 검색하여 허목의 「月巖記」와 정식의 「月出山錄」, 그리고 송정희의 「遊月出山記」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이들 자료를 유산 시기가 이른 순서대로 정리하였다. 이후 이들 기관 및 사이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개별문집까지 조사한다면 그 목록은 더 확대될 것이라 생각한다.

2. 월출산 유산 경로

月出山 遊山記를 검토해 본 결과 구체적 경로를 알 수 없는 金昌協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월출산 서쪽인 道岬寺[녹거동]에서 출발하여 용암사 → 구정봉으로 이르는 경로를 이용하였다. 이는 도갑사가 월출산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상당했음을 말해준다. 도갑사는 월출산에 위치한 대표적 사찰로, 도선국사가 창건했다고 알려진 절이다. 특히, 도갑사의 승려들은 조선시대 월출산을 오르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자 역할을 주로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데⁸⁾ 이러한 이유로 도갑사가 월출산 유람의 출발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
- 7) 김순영의 「호남 遊山記의 자료적 특징」에서 월출산 遊山記로 정리한 목록은 김창협 의 「登月出山九井峯記」, 김태일의 「遊月出山記」, 송병선의 「遊月出天冠山記」, 양재경 의 「書二客月出山記後」, 양희갑의 「月出山記」, 유언호의 「題徐樂甫遊月出山記後」, 정 상의 「月出山遊山錄」이다. 여기에서 유언호의 「題徐樂甫遊月出山記後」와 양재경의 「書二客月出山記後」는 작가가 직접 월출산을 유람한 후 지은 기록이 아니므로 제외 하였고, 20세기에 지어진 양희갑의 「月出山記」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8) 김수항이 월출산을 유람하고 난 후 지은 詩 「道岬寺, 書贈法閒上人」에서 “내가 보건대 도갑사는 큰길과 가까워서 명령을 전하는 관리들이나 여행하는 선비 들이 왕래가 날마다 끊이질 않아, 스님들은 이들을 응접하느라 겨를이 없는 것을 항상 근심하였다.[余觀岬寺濱於孔道, 擁傳之賓, 躡屨之士, 往來日無虛也, 緇

<월출산 遊山 경로>

작가	제목	遊山 경로
鄭 詳	「月出山遊山錄」	燧院 → 鹿車洞 → 鹿車寺址 → 朴達巖 → 朴庵 → 眞庵 → 龍庵 → 九井峯 → 三尊獅子庵 → 龍庵 → 金猪窟 → 觀音巖 → 道岬寺 → 碧澗亭
許 穆	「月巖記」	道岬寺 → 龍巖寺 → 九井峯 → 九折瀑布 → 七池精舍 → 竹社[奉僊庵]
金昌協	「登月出山九井峰記」	九井峯
金兌一	「遊月出山記」	鹿車洞 → 龍巖寺 → 九龍峯[九井峯] → 龍巖寺 → 道岬寺
鄭 栻	「月出山錄」	晉州 → 河東 行保 → 喚仙亭 → 仙巖寺 → 松廣寺 → 天子庵 → 寶城新村 新村 → 八仙亭 → 長興 林柿村 → 康津 竹寺 → 三尊菴 → 天皇峯 → 九井峯下 → 龍巖庵 → 九井峯 → 白雲庵 → 白雲洞 → 康津 牛頭山 高聲庵 → 天冠山 → 九精菴 → 長興 長田村 → 寶城 開興寺 → 樂安府 → 順天 雲谷 → 時至谷 → 河東 行保 → 頭理峴 七松亭 → 晉州
宋正熙	「遊月出山記」	鹿洞書院 → 道岬寺 → 鳩林里 會社亭 → 道岬寺 → 上見性庵 → 龍巖寺址 → 九井峯 → 天皇峯(실괘)
宋秉璋	「遊月出天冠山記」	古阜 萬宗齋 → 金祿休 → 靈巖 對月樓 → 道岬寺 → 彌勒庵 → 上見性庵 → 九井峯 → 天皇峯 → 上見性庵 → 玄氏 三碧亭 → 白蓮寺 → 九江浦 → 魏氏長川齋 → 烽臺 → 九龍峯 → 旗竹峯 → 金水窟 → 女妓亭 → 金氏 富春亭 → 寶城 牛山 → 木美菴 → 母候山 趙氏 超然亭 → 谷城

한편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용암사에서 구정봉으로 오르는 경로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진주에서 출발한 鄭栻뿐이다. 그는 남쪽에 있는 삼존암 → 천황봉 → 용암암(용암사) → 구정봉을 둘러보는 경로를 선택했다. 이는 그가 진주에서 출발하여 순천 → 보성 → 장흥 → 강진을 거쳐 월출산에 올랐기 때문이었다.

특이한 것은 宋正熙의 경로이다. 그는 월출산 탐승에 앞서 교동에 있는 녹동서원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일부러 다시 20여리 떨어진 道岬寺로 가

流常患於應接之不暇.]”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鄭詳의 유람에도 도갑사의 승려들이 동원되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서 월출산 유람을 시작했다. 녹동서원이 있는 곳은 조선시대 월출산 天皇峯을 오르던 탐승 경로의 시작 지점으로 알려진 곳인데⁹⁾, 그가 눈앞에 가까운 경로를 두고 道岬寺로 가서 월출산 유람을 시작했다는 점은 도갑사와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송정희의 관심이 상당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송정희는 도갑사 근처에 있는 구림마을을 방문하고 마을에 있는 회사정에 있는 시문을 살펴본 후 이를 기록으로 남겨 두었다.¹⁰⁾ 월출산에 올랐던 작가들의 유람 경로가 대동소이한 만큼 그들이 묘사하고 있는 월출산의 모습 또한 비슷하다. 하지만 각각의 작가들이 월출산 유람을 시작한 목적이나 유산기의 특징은 유산기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이를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Ⅲ. 月出山 遊山記의 작품별 특징

1. 최초의 月出山 遊山記: 鄭詳의 「月出山遊山錄」

조선시대 최초의 月出山 遊山記는 鄭詳에 의해 지어졌다. 그는 조선 중기 문신으로 1533년 나주에서 태어났다. 1574년에 장원으로 급제하였고,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李舜臣의 휘하에서 싸웠다. 후에 閑山島大捷에 참가하여 공을 세웠으나 병으로 인해 고향으로 돌아왔으며, 전쟁이 끝

9) 국립공원 홈페이지에 “과거 조선시대 월출산 천황봉을 오르던 코스가 이 곳 산성대 코스였습니다. 산성대는 영암 읍성의 봉수대를 일컫는 말로 지금도 이곳에는 옛날 산성의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산성대를 오르기 전 입구에는 月出第一關이라는 암각이 새겨져 있으며, 이 암각이 새겨진 바위는 문바위로 전해지며, 실제로 이 바위에는 옛날 문을 달았던 흔적이 있습니다.”라는 설명이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 검토한 遊山記 작가 가운데 이 경로를 이용한 경우는 없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0) 宋正熙, 『南遊錄』, 「遊月出山記」, “往鳩林傍湖, 而閭里甚稠, 竹樹密翳, 會社亭, 巋然傑構, 有前輩題詠.”

난 후 1604년 월출산에 오른 뒤 이 체험을 「月出山遊山錄」으로 남겼다.

정상이 남긴 「月出山遊山錄」은 1604년 4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5일간 월출산을 유람한 내용을 날짜 순서대로 기록한 기행일기이다. 그는 영암과 가까운 나주에서 태어나고 머물렀지만 “월출산을 창문으로만 대하고 70여 년 동안 진면목을 보지 못해 항상 한스럽게 여겼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평생 근처에 있는 월출산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때마침 “龍菴寺가 새로 지어져 호남 제일의 명승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나이 72세에 월출산 유람을 시작한다.¹¹⁾

그가 나주를 출발한 뒤 처음 도착한 곳은 燧院이다. 수원은 공무상 여행하는 관리가 이용할 수 있는 숙식처로서 영암 신북면 부선 마을에 설치된 곳이다. 鄭暉은 이곳에 도착한 후 군민들의 환영을 받았고 이후 영암 군수와 담소를 나눈 뒤 鹿車洞에서 월출산 유람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당시 鄭暉이 공직에 있었거나 혹은 그의 지위가 이에 방불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 遊山記의 후반부에 유람을 하는 과정에서 향교 유생들이 지은 글 15편을 채점했다¹²⁾는 기록도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해준다.

鄭暉이 월출산을 유람한 방법은 籃輿를 이용한 것이었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가파른 산을 유람할 때에 말이나 소를 타고 오르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자주 籃輿를 이용했다. 籃輿를 이용한 시기는 산마다 약간씩 차이를 보이지만, 금강산의 경우에는 16세기 말 일반화 된 것으로 보이고, 지리산의 경우 15~16세기에는 도보로 17세기부터는 籃輿를 사용했으며, 청량산과 가야산은 18세기 이후 籃輿를 일반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¹³⁾ 鄭暉의 기록으로 볼 때 월출산 유람에는 17세기 초에 籃輿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鄭暉의 遊山記에는 ‘암자의 승려 10여명이 가마를 메고 내려왔다[菴僧十餘 肩

11) 鄭暉의 글에는 ‘龍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주변에 九井峯, 금저굴과 노적암 등이 자리한다는 사실과 석담, 마애불상, 절의 우물 등 주변의 묘사를 통해 ‘龍菴’은 용암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12) 鄭暉, 『滄洲先生遺稿』 卷1, 「月出山遊山錄」, “郡校儒生製述十五度點”

13) 정치영, 『사대부, 산수유람을 떠나다』,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p.128-132.

輿下來]’라고만 기록되어있어 이들의 소속이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

鄭詳이 월출산에 오르게 된 계기이자 목표가 새로 지어진 龍菴을 둘러 보는 것이었던 만큼 그는 遊山記의 많은 부분을 용암사와 그 주변지역을 서술하는데 할애하였다.

날 듯 한 용마루가 구름 위로 솟았고 높은 암벽이 우뚝 서 있었다. 절 안으로 들어가니 단청이 휘황찬란하여 임진왜란 이후에 가장 이른 건축물이라고 할 만하다. 작은 누각에 앉아 보니, 산봉우리 끝은 바다 빛이요, 자리 아래엔 하늘 빛이 노을빛과 함께 녹아들면서 광채를 발하더니 금빛으로 반짝거렸다. 법당 안으로 들어가 보니 금불상 하나가 놓여 있었고 승려 30여명이 가사를 입고 앉아 있는데 법패 소리가 아주 청아했다. 날이 어두워져 잠자리에 들었다. 정신이 아주 해맑아지는 것이 마치 무릉도원의 옥당에라도 들어온 느낌이었다. 암자의 서쪽 대에는 큰 바위 두 개가 나란히 서 있는데, 하나는 金猪窟이요, 또 하나는 露積巖이라고 하였다. 법당 뒤에는 아주 달고 차가운 맑은 샘이 있었는데,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차갑다고 한다. 2층으로 된 돌계단을 내려가니 웅기가 놓여 있었는데 승려들의 양식과 반찬을 저장해 두는 곳이었다.

누대의 남쪽에는 첩첩이 쌓인 바위가 곧장 위로 치솟아 있는데, 마치 늙은 용이 머리를 내저으며 구슬을 희롱하는 것과 같은 모양이었다. 이 때문에 이 암자의 이름이 용암이 되었다고 한다. (중략) 암자의 동쪽에는 5층 석탑이 있었는데 매우 기이하여 중손 난을 시켜 기록하게 하였다. 그리고 九井峯에 올랐다. (중략) 걸어서 서쪽 산마루를 넘어가니 5층 석탑과 동탑이 마주보고 서 있었고 그 사이 큰 벼랑에는 미륵상이 새겨져 있는데 매우 기이하였다.¹⁴⁾

용암사는 『東國輿地志』, 『大東地志』, 『東國名山記』 등의 문헌에 ‘九井峯 아래에 있었던 절’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으며, 정확한 창건 연대와 역사에

14) 鄭詳, 『滄洲先生遺稿』卷 1, 「月出山遊山錄」, “飛臺插雲空高, 巖矗立入. 沙門金碧照耀兵亂後第一名構也, 坐小樓峯頭每色, 席下天光與落照溶成一輝, 金彩瑩耀. 入法堂, 有金佛一軀, 禪僧三十餘輩, 着袈裟, 清梵寥亮. 日暝而臥, 魂清骨冷, 如八桃源之玉堂矣. 菴之西臺, 巨巖雙立, 一金猪窟, 一露積巖云. 堂後清泉甘冽, 冬溫夏冷. 二層石砌下, 有甕器, 僧之儲蓄饌處也. 樓南有壘巖直上, 如老龍裹頭弄珠之狀, 故名菴曰龍云. (중략) 菴東有石塔五層甚奇, 使闕題名. (중략) 步越西嶺, 有石塔五層, 與東塔對立, 間有巨崖, 刻彌勒像甚奇.”

대해 전해져오는 바가 없다. 다만, 용암사 뒤편에 있는 월출산마애불좌상이 통일신라 말 혹은 고려시대 초기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용암사에서 발견된 유물 등을 통해 고려시대에 창건된 절일 것 이라고만 추측하고 있다.¹⁵⁾ 이러한 상황에서 鄭詳의 기록은 이 당시 용암사가 중건되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기록이다. 鄭詳은 용암사에 대해 ‘임진왜란 이후에 가장 이름난 건축물’이라고 극찬하고 있으며, 용암사의 외부와 내부의 모습에 대해 차근차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용암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은 「月出山遊山錄」이 유일하다. 또 용암사라는 이름의 유래, 당시 머물고 있던 승려의 인원, 용암사 주변의 모습과 석탑 등도 鄭詳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암자의 동쪽에 있다고 한 5층 석탑은 아마도 용암사지 3층 석탑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단과 상륜부 노반까지 포함하여 5층이라고 말 한 듯하다. 그리고 5층 석탑과 동탑 사이에 있는 미륵상은 월출산마애불좌상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¹⁶⁾

용암사에 대한 상세한 묘사 이외에 그의 遊山記에서 눈에 띄는 점은 임진왜란 이후의 흔적과 감회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의 遊山記가 임진왜란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지어진데다 그가 직접 임진왜란에 참여하여 싸운 인물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서남쪽에는 바다 빛이 끝없이 눈에 가득 들어왔다. 이곳에 왜놈의 선박이 드나들었다고 생각하니 개탄스러웠다.[西南海色, 極目無際, 想倭船出入, 發一慨也.]”, “동쪽에 있는 養子峯은 몹시 험준하여 남쪽의 백성들 중 이곳으로 난리를 피해 간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東有養子峯甚險, 南民多避亂云.]”, “절 남쪽 가운데에는 큰 사찰이 있는데 수군의 군영 자리로 침해를 당하여 지금은 승려 세 사람만이 남아 있다.[寺南中巨刹, 爲兵水營所侵虐, 只有僧三人]” 등의 기록은 임진왜란 후 월출산과 이를 바라본 鄭詳의 심경이 묘사되어 있다.

그는 월출산 유람 내내 산봉우리의 빼어남에 대해 극찬하면서 옛 사람

15) 이경화, 「월출산 용암사지 마애불의 사적 해석」, 『한국사상과 문화』 40집, 2007, p.106.

16) 위의 논문, pp.111-112.

들이 월출산을 小金剛이라고 말한 것에 적극 공감하였다. 그리고 평생의 숙원을 풀게 되었음을 다행으로 여겼다. 그리고 그가 남긴 「遊月出遊山記」는 월출산을 유람한 후 남긴 최초의 遊山記가 된다. 다만, 5일간의 유람에 비해 남아있는 기록이 짧은 것이 아쉽다.

2. 월출산이 품은 이름들의 寶庫: 許穆의 「月嶽記」

許穆은 한양에서 태어나 반평생이 넘도록 벼슬과 인연이 없이 오직 한 사람의 학자로서 연구와 저술을 일삼았다. 63세의 나이로 지평에 出仕한 이후에야 본격적인 관직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우의정의 자리까지 오른 입지적 인물이다.

허목은 평소 우리나라의 명산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의 문집 『記言』에 실려 있는 여러 편의 遊山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그는 월출산 이외에도 德裕山, 九月山, 智異山, 天冠山 등 우리나라의 여러 명산을 유람한 후 이 산들에 대한 遊山記를 남겨두었다.

許穆이 지은 「月嶽記」는 그동안 일부 신문이나 저서에서 잠깐 소개되었을 뿐¹⁷⁾ 遊山記를 다룬 이전 연구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작품이다. 許穆이라는 인물이 가진 무게감을 감안하면 이는 제목이 주는 낯설음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월출산에 대한 다른 작품에서도 한결같이 '月出' 대신 '月嶽'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도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월출산의 특징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였으리라 추측된다.

許穆이 월출산에 오른 시기는 1640년 가을이다. 이는 「月嶽記」 말미의 '十三年孟冬初吉, 眉叟記'라는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앞서 「月嶽記」를 언급한 자료들에서 '十三'을 현종 13년으로 보고 1672년, 그의 나의 78세 때의 일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잘못이다. 여기서 13년은 승정13년이기 때문

17) 심경호, 『산문기행-조선의 선비, 산길을 가다』, 이가서, 2007; 박정원, 월간 『산』 577호, 2017.

이다. 「월악기」의 첫 부분에서 '탐산에서 내려온 뒤 바로 월출산에 올랐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탐산은 천관산을 가리키는 것이며, 許穆이 천관산에 오른 시기는 1640년(인조18)으로 확인된다. 특히, 「月嶽記」의 내용 가운데 “이 암자의 승 應均이 기문을 청하기에 「奉僊庵記」를 지었고, 大篆을 써서 주었다.[此奉僊庵也 其僧應均爲之請作奉僊庵記 又作大篆與之.]”는 기록이 보이고, 「奉僊庵記」에는 “설탄이 처음 암자를 지은 것은 天啓 원년(1621, 광해군13) 6월이고, 응균이 증축한 때는 崇禎 12년(1639, 인조17) 10월이라고 한다. 그 이듬해 10월에 내가 산에 들어가서 九井峯을 구경한 뒤 눈을 무릅쓰고 이곳으로 와서 쉬었는데, 응균이 청하기에 이렇게 기록한다.[竵之初築 在天啓元年六月 均增作之歲 崇禎十二年十月云 其明年十月 余入山觀九井 冒雪來憩于此 均請 爲記如此.]”는 내용이 있다. 따라서 「월악기」의 저술 시기는 164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허목의 「月嶽記」는 도선국사와 도갑사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록이다. 그가 월출산 유람을 시작한 道岬寺는 도선 국사가 세웠다고 알려진 절이다. 필시 許穆도 道岬寺를 보면서 도선 국사를 떠올렸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道岬寺에 대한 묘사 대신 “신라의 승려 도선이 머물렀던 곳”이라고 밝히며 도선 국사가 천 년 뒤의 일을 예언할 수 있는神通력이 있었다고 설명하였다.¹⁸⁾ 또 그가 유산기 끝에 부록형식으로 기록해둔 내용¹⁹⁾ 가운데 도갑사의 國長生과 皇長生에 관한 기록은 도갑사의 내력을 알려주는 것이다.

道岬寺 아래에 立石이 있는데 ‘國長生’이라고 새겨져 있고, 그 아래 皇山에도 印석이 있는데 ‘皇長生’이라고 새겨져 있다. 父老들이 전하는 말로는 도선이 만

18) 許穆, 『記言』 卷28, 「月嶽記」, “道岬, 新羅僧道詵所居, 詵學道通神, 能言千載事.”

19) 허목의 「月嶽記」 독특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遊山記가 유람을 마친 후의 감흥이나 遊山記를 저술한 목적을 기록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과는 다르다. 許穆은 “13년 孟冬 初吉日에 미수는 기록하다.”라고 저술 시기를 밝힌 후, 부록 형식으로 월출산에 대한 세 가지 사실을 기록해 두었다. 월출산에서 자란다는 蓀草, 道岬寺 아래에 있는 國長生과 皇長生, 鳩林과 西湖의 매향비에 대한 내용이 그것이다.

들었다고 한다. 萬曆 연간에 元帥 西平公이 호남 지역을 순찰할 적에 이곳을 지나면서 ‘국장생’이라고 새겨진 입석을 파내고 그 아래에 돌을 새겨 四座를 표시하려 하였으나, 돌이 깊이 박혀 있으므로 파내려고 하다가 무익하다고 생각하여 다시 묻었다.²⁰⁾

許穆이 언급한 ‘국장생’은 현재 영암 죽정리에, ‘황장생’은 영암 소전머리에 위치하고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과 『道岬寺寺蹟』 등의 기록에서는 道岬寺가 도선국사에 의해 9세기경 창건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시기의 것으로 보이는 유적이나 유물은 발견된 것이 없다. 許穆이 언급하고 있는 ‘국장생’ 입석은 현존하는 道岬寺의 유적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1090년에 세워졌다. 국장생이 고려시대에 사원이 가진 토지의 경계선을 표시하기 위해 사방에 세우도록 한 석표임을 감안해 볼 때 국장생의 존재는 당시 道岬寺가 고려 조정의 지원을 받는 사원임을 알려 주는 중요한 유물이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道岬寺가 국장생이 건립되기 전에 창건되었으며, 11세기 후반에 이르러 대대적으로 발전하였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²¹⁾ 소전머리에 있는 ‘皇長生’의 경우 별도의 명문 없이 세 글자만 새겨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연대를 추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허목의 기록 속에서 ‘도선이 이를 만들었다는 父老들의 말’에 의거해 볼 때 道岬寺가 세워진 시기와 비슷할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許穆은 자신의 발걸음이 닿은 월출산의 모습에 대한 상세한 묘사와 설명, 자신의 감흥을 기록하기 보다는 여러 봉우리들과 바위, 작은 암자와 누대들의 이름들을 기록해 두었다. 그래서 허목의 「月嶽記」에는 여타의 유산기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생소한 이름들이 많이 등장한다. 그 가운데 일부분을 살펴보자.

20) 許穆, 『記言』 卷28, 「月嶽記」, “道岬下, 立石刻國長生, 其下皇山, 又立石刻皇長生. 父老傳說道洗爲之. 萬曆中, 元帥西平公出巡湖南, 過此掘國長生, 其下刻石標四座, 石深入, 欲發之, 以爲徒無益, 復埋之.”

21)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운무가 옮겨간 뒤에 天星峯을 보니 더욱 신비롭고 수려하였다. 구정봉 아래에 九折瀑布가 있고, 물이 고여 깊은 못이 된 것이 7개인데 다 기이한 절경이어서 유람할 만하였으며, 못 위쪽에는 七池精舍가 있다. 구정봉 남쪽에 한 쌍의 석봉이 있는데, 그중 높은 것이 靑靑臺이다. 그 남쪽에는 佛頂峯이 있고, 그 아래에는 白雲社가 있다. 구정봉 북쪽 벼랑의 元曉臺에 물맛이 좋은 샘이 있다.²²⁾

위 인용문에 등장하는 天星峯, 九折瀑布, 七池精舍, 靑靑臺, 佛頂峯, 白雲社, 元曉臺는 모두 허목의 「월악기」에만 등장하는 이름들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용암 아래에 있는 세 개의 石車의 존재, 용암사 동쪽에 있었던 孤山寺, 하견성암과 그 아래의 봉선암의 존재까지 그의 유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²³⁾ 뿐만 아니라 「月嶽記」는 동석에 대한 추가 정보를 담고 있다.

그러고 나서 九井峯에 올랐는데 봉우리 위에 九龍井이 있었고, 雲霧를 만났다. 봉우리 위에 중처럼 생긴 거대한 바위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흔들어도 흔들리는 듯하고 열 사람이 흔들어도 또한 그 정도에 불과하였다. 고을 이름을 靈巖이라고 한 것은 이 때문이라 한다. 이와 같은 돌이 세 개인데, 하나는 도감사 아래에 있고 또 하나는 용암사 아래, 少年臺 위에 있다.²⁴⁾

구정봉 서쪽에 있는 ‘동석’이 본래 세 개였다는 것은 다른 유산기에서도 발견된다. 하지만 나머지 두 개의 위치에 대해 처음 언급한 기록이 「月嶽記」이다. 따라서 이 기록은 실제 월출산에 존재하는 동석의 위치를 찾는

22) 許穆, 『記言』卷28, 「月嶽記」, “雲霧後, 觀天星峯, 尤神秀. 下有九折瀑布, 水積爲潭水者七, 皆奇絕可遊, 上有七池精舍. 九井南, 有雙石峯, 其高者靑靑臺, 其南佛頂峯, 其下白雲社. 九井陰崖元曉臺, 有甘泉.”

23) 許穆, 『記言』卷28, 「月嶽記」, “龍巖下, 有三石車, 曰‘雲車’, 在少年臺東, 曰‘馬車’, 在雲車北, 曰‘鹿車’, 在最下, 皆山中異蹟, 鹿車最大, 故謂其洞曰鹿車洞. 其東北別峯曰‘孤山’, 下有孤山寺. 南對九井峯, 多石壁奇巖. 道岬西北石峯間, 有上下見性, 又下則奉僊庵. 從靑臺下, 懸手冒雪憩竹社, 此奉僊庵也.”

24) 許穆, 『記言』卷28, 「月嶽記」, “仍登九井峯, 峯有九龍井. 遇雲霧, 峯上, 有巨石如鐘, 一人搖之則有情, 十人搖之, 亦不過. 邑有靈巖之名, 以此云. 山石如此者三, 一在道岬下, 一在龍巖下少年臺上.”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처럼 그의 유산기는 월출산의 산세나 유람의 흥취를 묘사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발길이 머물렀던 장소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두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충분하다. 더 나아가 허목이 기록해 놓은 이름 대부분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서 조선시대 월출산이 품은 이름들을 고증하여 오늘날과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3. 탐승행위의 꺾진한 묘사: 金昌協의 「登月出山九井峰記」

조선의 대표적인 문장가인 金昌協이 남긴 「登月出山九井峰記」는 1675년, 그의 나이 25세때 월출산 구정봉에 오른 뒤 남긴 기록이다. 金昌協의 연보에 의하면 그는 총 3회에 걸쳐 월출산에 오른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아버지 김수항의 유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김수항은 1675년 7월 갑인예송에 연루되어 영암으로 유배를 당한다. 김창협은 아버지의 유배길에 동행하여 영암에 도착하였고, 그해 8월 처음으로 월출산 유람길에 나선다. 九井峯에 오른 시기는 아마 이때로 추측된다.²⁵⁾ 그리고 이듬해 12월 아버지와 함께 두 번째로 월출산에 올라 우거, 고산, 용암 등의 암자를 둘러보았다. 계절상 산에 오르기 좋은 시기는 아니었지만 道岬寺 승려들의 간곡한 요청으로 함께 산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²⁶⁾ 그리고 1677년 10월 아버지, 형제들과 함께 또다시 월출산에 올라 道岬寺를 둘러보았다.²⁷⁾

25) 『문곡집』의 기록에 의하면 “九井峯이 가장 조망이 하기 좋은 곳인데 벼랑길이 매우 위험하고 비탈졌기 때문에 결국 오르지 않았다.[九井峯最有眺望之勝,而崖徑甚危戾,故不果登焉]”라고 하였으므로 아버지와 함께 하는 유람에서는 구정봉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곡집』 卷7, 「月山紀游, 次雜詩韻」 其4.

26) 金壽恒, 『文谷集』 卷3, 「道岬寺, 書贈法閒上人」 “寺之諸釋每來過, 輒邀余游, 余辭以故如此, 而諸釋之邀之, 愈久而愈未已也. (중략) 今國哀旣闋, 且念諸釋之意不可終孤, 余爲至寺一宿而歸.”

27) 金昌協, 『農巖集』 卷35, 「年譜上」. “乙卯肅宗大王元年, 先生二十五歲. (중략) 七月, 從議政公于靈巖謫所. 時, 兇黨擅國, 誣序東朝, 議政公上章, 極論其狀, 遂被譴. 八月,

그가 남긴 「登月出山九井峯記」은 전체가 205자로 월출산 九井峯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九井峯을 오르는 과정에만 집중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여느 遊山記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登月出山九井峯記」의 전문을 살펴보자.

월출산 꼭대기의 九井峯은 사방이 모두 깎아지른 듯한 높은 절벽으로 되어 있다. 오직 서쪽 벼랑 아래에 직경이 겨우 한 자쯤 되는 작은 굴이 위로 뚫려서 꼭대기까지 통해 있으니, 꼭대기에 오를 때에는 반드시 굴속을 통해야 한다. 이 굴속으로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뱀처럼 기어가야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갓이며 두건을 벗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으니, 갓이며 두건을 쓴 채로 들어가는 것은 마치 제 몸집보다 큰 동이를 문 쥐가 구멍 속으로 들어가려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굴속에 들어서면 비로소 바로 서서 걸을 수가 있으나 그래도 계속 굴속을 걸어가다 보면 굴이 굽어지면서 좁아지면 양쪽 벼랑 사이에 몸을 잔뜩 움츠리고 걸어야 했다. 귀를 담에 바짝 댄 것 같은 자세로 몇 걸음을 가자 굴이 끝났다. 굴이 끝나자 마침내 우물 안에서 나가는 것처럼 위로 나가게 되었다. 굴에서 나가자 또 곧 깎아지른 절벽 위로 길이 나 있는데, 절벽 아래에는 땅이 보이지 않았다. 절벽 틈에 사람이 다닐 수 있게 난 길은 한쪽 발만 디딜 수 있을 만큼 좁아서, 반드시 앞뒤로 발을 번갈아 가며 디뎌야 건널 수 있었다. 앞발이 벼랑 위에 있고 뒷발이 아직 굴속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위태롭지 않았으나, 뒷발이 앞발을 대신하여 벼랑 위에 놓이게 되자 오로지 몸으로 벼랑에 붙어 있는 꼴이라 매우 위태로웠다. 그러나 이곳을 건너자 곧 꼭대기였는데, 굽어보니 큰 바다가 마치 발밑에 있는 것만 같아 또한 상쾌하였다.²⁸⁾

遊月出山. 十月, 還京. 丙辰先生二十六歲, 三月, 往靈巖. 五月, 遊小石門, 還京. 十一月, 往靈巖. 十二月, 陪議政公, 遊月出山. 丁巳先生二十七歲, 春, 還京. 九月, 往靈巖. 十月, 陪議政公, 遊道岬寺."

- 28) 金昌協, 『農巖集』, 卷23, 「月出山九井峯記」. "月出山之絕頂, 爲九井峯, 四隅皆峻崖巉嶮. 獨西厓下, 有小穴徑僅尺許者, 上穿以達于頂. 凡上頂, 必自穴中取道. 其入穴, 必匍匐蛇行乃入. 然非去冠巾, 亦不容, 猶鼠銜囊數入穴. 入而乃人行矣, 然猶行穴中也, 穴墮而窄, 行者束身兩厓間. 其耳如屬垣者, 數武而穴窮. 穴窮而乃上出, 如自井中者出, 而又卽道絕厓, 厓下者無地. 其隙之通人行者, 裁容一足, 置行者, 必前後代置, 足乃得度, 方前足置厓上而後足尙銜穴, 未危也. 及後足代前足置厓上, 則是專以身寄厓也, 危甚矣. 然度此, 卽爲絕頂, 俯觀大海, 如在履底, 則又爽然矣."

구정봉은 월출산을 대표하는 봉우리로서 유산기를 지은 작가들은 모두 이곳에 대한 기록을 남겨 놓았으며, 하나같이 九井峯에 오르는 과정의 험난함을 묘사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기록이 바로 김창협(金昌協)의 글이다. 그는 구정봉에 오르는 과정을 매우 구체적이고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는데, 좁은 굴 속을 통과할 때에는 ‘뱀처럼 기어가야 한다.’고 하거나 갓이나 두건을 쓴 모습을 ‘제 몸집보다 큰 동이를 문 쥐’에 묘사한 부분은 구정봉에 오르는 과정의 험난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면서 익살스럽기까지 하다. 또 좁은 벼랑 사이를 통과하는 모습을 ‘귀를 담에 바짝 댄 것 같은 자세’라고 묘사한 부분과 절벽 틈에 난 좁은 길을 밧을 번갈아가며 내딛는 모습은 독자들로 하여금 실제 산을 오르고 있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들게 한다. 그만큼 「登月出山九井峰記」는 金昌協의 문학적 수사 능력을 알 수 있는 글이라 하겠다. 그리고 그는 이 과정 끝에 정상에 오른 감동을 ‘爽’ 한 글자로만 표현함으로써 그가 느꼈을 무한한 상쾌함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였다. 이처럼 김창협(金昌協)의 기록은 그의 문학적 능력을 엿볼 수 있는 기록임과 동시에 당시 구정봉을 올랐던 경로와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살필 수 있는 글이다.

4. 풍류를 위한 유람: 金兌一의 「遊月出山記」

金兌一은 본관이 안동으로 1660년 병과에 급제한 후 관직생활을 시작하여 헌납, 문학 등을 거쳐 1691년 영암군수가 된다. 그리고 약 5개월간 정사를 펼치다가 영암을 떠나기 직전 하루 동안 월출산을 유람하였다. 「遊月出山記」는 월출산 유람만을 다룬 기록 가운데 가장 장편으로 월출산을 오르게 된 시기와 계기, 용암사와 구룡봉, 도갑사 등 주요 명승지의 탐승 과정과 감회, 마지막으로 遊山記를 남기는 목적의 순서로 기록하여 구성 측면에서는 가장 탄탄하다.

그의 유산기는 영암군수로 부임한 날 저녁 관아에서 바라본 월출산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월출산은 산 자체가 天皇峯을 중심으로 영암군에 속한 북쪽과 동쪽은 큰 바위로 이루어져 있고 강진군에 속하는

남쪽과 서쪽지역은 크고 작은 바위들이 산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기이한 봉우리들이 많다. 그는 월출산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루빨리 월출산에 오르고 싶었으나 병과 날씨 탓에 그 소망을 이루 못했다. 그러다 깊어진 병으로 휴가를 받아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야 아들과 함께 월출산에 올랐다.

그의 유람은 도갑사 아래쪽에 있는 녹거동에서 시작한다. 그는 앞서 살펴본 鄭詳의 유람처럼 籃輿를 타고 월출산을 유람했다. 이는 “몇 리쯤 가서 산 아래 녹거동에 이르니 도갑사의 승려 수 십 명이 가마를 가지고 와 기다리고 있었다.”²⁹⁾라는 기록과 遊山記 곳곳에서 험한 산길 탓에 籃輿를 타고 이동하기 어려웠음을 토로하고 있는 장면에서 확인된다.

그의 유람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일행 가운데 樂士가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月出山 遊山記 가운데 김태일의 유산기에서 유일하게 보인다. 遊山記 속에서 그는 월출산의 험한 길 때문에 전전공공 하는 모습이 종종 포착되는데, 이때 일행 가운데 통소 부는 사람과 피리 부는 사람에게 음악을 연주하게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³⁰⁾ 또 “내가 따라온 아이들과 구룡봉에 앉아 피리쟁이에게 피리를 불게 하고 술을 몇 잔 마셨다.”라는 표현과 “노니는 흥취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³¹⁾며 매우 아쉬워한 것으로 보아 그의 월출산 기행은 술과 음악이 함께 하는 풍류여행이었으며 그가 월출산에 오른 목적 또한 여기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유산기 곳곳에서 월출산에 대한 중요한 정보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용암사에 대한 내용이다. 그는 용암사에 대해 절의 규모가 10여 칸이고 머물고 있는 승려가 10여명이라고 밝혔다.³²⁾ 이는 앞서 살펴본 정상의 遊山記에서 용암사의 승려가 30명이라고 한 기록과 비교해 볼

29) 金兌一, 『蘆洲集』, 卷3, 「遊月出山記」, “行至數里許, 卽山下鹿車洞也, 道岬寺僧數十餘人持籃輿來待.”

30) 金兌一, 『蘆洲集』, 卷3, 「遊月出山記」, “行中有吹簫者, 有鳴笛者, 使之兩兩前導.”

31) 金兌一, 『蘆洲集』, 卷3, 「遊月出山記」, “余與從行兒輩坐九龍峯, 命笛工吹笛, 酌酒數杯.(중략)俄而遊興未闕.”

32) 金兌一, 『蘆洲集』, 卷3, 「遊月出山記」, “至龍巖寺, 寺蓋山之上頭九龍峯之下也, 斷石駕空, 構十餘間, 居僧亦十餘人.”

때 용암사의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또 그의 기록을 통해 월출산의 “動石”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른바 두 개의 흔들바위라는 것이 모두 봉우리 아래 10여 보쯤에 있는데 하나는 평평하고 넓어서 3분의 2가 바위 위에 있고 나머지 3분의 1이 허공에 드리워졌다. 또 하나는 높고 커다란데, 세 길 높이에 10여 아름의 둘레로 바위와 돌이 가득 모인 곳 가운데에 서 있었다. 두 바위의 무게는 비록 수백 명이 달려들어도 움직이기 어려울 듯 했는데 승려 한명을 시켜 흔들어 보게 하니 약간 움직였다.³³⁾

그는 ‘動石’에 대해 두 개의 흔들바위라고 표현했다. 본디 월출산의 동석은 세 개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영암 하나만이 현재 구정봉 서쪽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하지만 金兌一은 이와 다른 정보를 가지고 월출산에 올랐다. 산에 오르기 전 군민으로부터 ‘구룡봉[구정봉]이 이 산의 가장 높은 곳이며 여기에 두 개의 動石이 있다³⁴⁾는 내용을 들은 것이다. 그리고 이를 직접 목격하고 위와 같은 기록을 남겼다. 김태일이 남긴 기록을 허목의 기록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김태일이 말한 ‘두 개의 흔들바위’는 구정봉에 있는 것과 용암사 아래 소년대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는 월출산 유람을 마치며 “내 다리 힘이 평소에 좋지 않아 산을 오르고 내릴 때에 간혹 걷기 어려워 정신이 매우 피로하고 다리가 매우 아팠으나 고생이라 여기지 않았다. 오직 등람의 장대함과 흥금이 탁 트인 것만이 스스로 자랑스러워 이를 기록하여 아이들에게 보인다.”³⁵⁾라고 유산

33) 金兌一, 『蘆洲集』, 卷3, 「遊月出山記」, “所謂二動石, 皆在峯下十餘步許, 而一則平而廣, 三分之二在巖上, 一分垂空. 一則高而大, 丈可數三而圍可十餘, 立於衆巖石叢中. 二石之重, 雖累百人難動搖, 而使一僧往搖之能微動.”

34) 金兌一, 『蘆洲集』, 卷3, 「遊月出山記」, “다만 고을 사람들에게 듣기로는 구룡봉이 이 산에서 가장 높은 곳이고 그 아래에 두 개의 흔들바위가 있어 영암군이란 이름을 여기서 얻었으며 이곳에 이르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그곳에 가보지 않은 이가 없었다고 하였다.[第聞之郡人, 則九龍峯爲茲山之最高絕處, 而其下有二動石, 郡之得名以此石也, 凡大小人之至此者, 無不一往云.]”

기를 저술한 목적을 밝혔다. 여기에는 자신이 아픈 몸을 이끌고 호남의 명산을 둘러보았다는 자부심이 강하게 드러나며, 그가 남겨 놓은 「遊月出山記」를 통해 17세기 관리의 산수 유람의 한 측면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는 기록이라 하겠다.

5. 진주에서 영암까지의 여정을 담은 18세기 선비의 기록 : 鄭弼의 「月出山錄」

鄭弼은 경상도 진주 출신으로 스스로를 '明庵居士'라 부르며 對明義理를 지키고자 했던 선비였다. 만년에는 일가를 이끌고 지리산 武夷洞으로 들어가 은거했는데 현재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 그는 평생 조선의 여러 명산들을 두루 유람하였고,³⁵⁾ 호남의 명산인 월출산과 천관산에 대해서도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선뜻 유람에 나서지 못한 것은 그가 머물고 있던 진주와 영암까지의 먼 거리 때문이었다.³⁷⁾ 「月出山錄」을 통해 그의 여정을 살펴보면 10월 22일에 진주에서 출발하여 11월 3일에 월출산에 도착하였고, 다시 11월 5일에 영암에서 출발하여 8일 만에 도착했다고 하였다. 오고가는 도중 이곳저곳을 둘러보았기에 많은 시일이 걸린 탓도 있으나 적어도 20여일이 소요되는 장거리 여행이었던 것이다.

그가 남긴 「月出山錄」에는 월출산을 오고 가는 여정이 매우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여타 다른 遊山記들이 월출산까지 오고 가는 과정을 생략

35) 金兌一, 『蘆洲集』, 卷3, 「遊月出山記」, “余腳力素不健, 上山下山之際, 困於或步, 神甚疲脚甚痛, 不以爲苦. 唯以登覽之壯, 胃懷之豁, 自託於心, 而記之以示兒輩.”

36) 鄭弼, 『明庵集』, 卷6, 「行狀」, “自號曰, 明庵居士, 常戴蔽陽子, 以寓宗邦之痛, 耻與世伍, 息交絕遊, 出則名山大川, 入則經經緯史, 伽椰, 大小白, 五臺, 皆骨, 妙香, 錦山, 月出, 天冠, 足無不遍.”

37) 鄭弼, 『明庵集』, 卷5, 「月出山錄」, “내가 일찍이 중에게 들으니 호남의 명산으로는 월출산이 제일이고, 천관산이 그 다음이라고 하였다. 한번 구경하고 싶었으나 거리가 먼 것이 문제여서 다만 수고롭게 꿈속에서만 생각해왔다.[余嘗聞之僧, 湖南之名山, 月出第一, 天冠次之, 欲一見而病其遠.]”

하거나 대표적인 한 두 곳만을 간략하게 기록해 놓은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정식이 월출산 유람이라는 주된 목적 이외에도 선현들의 자취를 밟아보고자 하는 또 다른 목적이 존재했던 탓일 것이다.

그는 월출산으로 오는 도중 순천부 환선정, 임청대를 둘러보고, 선암사와 송광사를 거쳐 강진에 도착한다. 때문에 그는 다른 작가들처럼 도갑사 방면이 아닌 三尊庵에서 天皇峯을 거쳐 용암사와 九井峯을 오르는 경로를 이용하여 월출산을 둘러보았다. 그가 처음 올랐던 천황봉은 월출산의 最高峰이지만 다른 遊山記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는 곳이다.³⁸⁾ 그는 천황봉에 오르는 험한 과정을 “나는 새가 지날 수 있을 만큼 좁고 가파른 길을 오르는 것 같다”고 하면서 정상에 오른 뒤에도 한참 동안이나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고 하였다. 또 천황봉에서 내려와서는 “내려온 뒤에 뒤를 돌아보니 과연 나는 신선과 나는 새가 아니면 오르기 결코 불가능한 곳이었으니 나 스스로도 어떻게 내려왔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하면서 산을 내려온 감회를 실감나게 표현했다.³⁹⁾ 그리고 그는 험한 길을 내려오면서도 주변에 자라는 나무와 풀들을 기억하고 이를 기록해 두는 정성을 보였다.⁴⁰⁾

그러나 그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묘사한 부분은 九井峯 아래에서 운무를 만난 장면이다.

38) 天皇峯은 해발 809m로 월출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다. 하지만 월출산 遊山記 뿐만 아니라 『東國輿地勝覽』, 『燃藜室記述』 등의 기록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월출산 遊山記를 남긴 작가 가운데 天皇峯을 오른 사람은 鄭栻과 宋秉璋 뿐이고, 宋正熙는 오르려 했으나 바람 때문에 포기했다고 밝혔다.

39) 鄭栻 『明庵集』, 卷5, 「月出山錄」, “翌日, 與庵僧同上天皇峰. 捫石攀崖, 如上鳥道, 流漿遍身, 喉舌焦燥, 適有懸水, 摘而解渴. 及登上頂, 勢甚高危, 精神惘然, 不敢挺立. 扶木合眼, 倚石俯伏, 心神始定. 小頃悄坐望見, 則左右諸山, 皆如丘垤. 惟東遶瓊流, 西邊無等山, 橫如一眉, 大海當前, 水天一色而已. 自北而上, 自東而下, 或攀木而垂脚, 或扶壁而轉身. 及下回顧, 則果非飛仙飛鳥, 必不能矣. 而自不知何由從下也.”

40) 鄭栻 『明庵集』, 卷5, 「月出山錄」, “구불구불한 산등성이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내려오는 길에 다른 잡목이나 풀은 없이 오직 소나무, 삼나무, 측백나무, 박달나무, 산죽, 당귀, 지초, 동백, 춘백이 우거져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自山脊曲曲步步而行, 則無他雜木凡草, 惟松, 杉, 柏, 檀, 山竹, 當歸, 芝草, 冬柏, 春柏, 蒼鬚遍滿.]”

그대로 바위 위에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빗소리가 몰려오는 것 같더니 하늘에서 크게 올랐다. 매우 놀라 돌아보니 흰 구름이 갑자기 산 아래로부터 올라와 산과 골짜기를 덮어 버렸다. 어지러이 날고 자욱하였는데, 소매 속으로 날아들기도 하고 가랑이 사이로 날아들기도 하였다. 때로는 얼굴에 닿기도 하고, 때로는 갓에 닿기도 하며 갑자기 다가왔다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는 등 서로 끊임없이 이어졌다. 서늘한 기운이 몸에 스며들고 차가운 소리는 귀에 가득하였다. 지척을 분간할 수 없어 서로 일행을 잃어버리고 허둥지둥 서로를 부르면서 나아갈 방향을 알지 못했다. 서로 붙들고 끌어안으며 말하기를, “바위틈에 붙어서 자야겠다. 잘못 되어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했다.⁴¹⁾

그는 천황봉에서 내려와 구정봉으로 가는 도중 거대한 운무를 만났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높은 산봉우리에서 일행들과 서로 끌어안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통해 거대한 자연 앞에 수궁할 수 밖에 없는 인간의 미약함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상황을 산신령이 자신을 환영하는 의미로 희롱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그리고 덕분에 짧은 순간이었지만 신선이 되는 듯 하였다며 자족하였다.⁴²⁾ 그가 遊山記를 기록하면서 이 부분을 가장 자세히 묘사했다는 점은 천황봉과 구정봉에 올랐을 때보다 이때의 기억이 더 강했던 탓일 것이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그가 속세를 떠나 산중에

41) 鄭栻, 『明庵集』, 卷5, 「月出山錄」, “因彷徨巖上, 忽如驟雨聲, 空中暴至, 驚惶顧視, 則白雲忽自山下而來. 籠山罩壑, 紛紛郁郁, 飛入袖中, 飛出袴下, 或觸面, 或觸冠, 倏來倏去, 相續不已. 涼氣襲身, 寒聲滿耳, 咫尺不辨, 一行相失, 蒼黃忙呼, 不知所向, 扶抱相謂曰, “寄宿巖間, 有死而已.”

42) 鄭栻, 『明庵集』, 卷5, 「月出山錄」, “이는 산신령이 환영하는 의미로 희롱하면서 나로 하여금 세속의 먼지를 모두 떨쳐버리고 저 흰 구름을 타고 올라가도록 하고자 한 것이 아니겠는가.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구름을 타고 바람을 거느리고서 황홀하고 아득함 속에서 내 자신이 놀았으니, 매미처럼 티끌세상의 허물을 벗고 날개를 달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았다. 비록 신선들처럼 바람과 이슬을 마시고 호흡하면서 속세를 벗어나 길이 머무를 수는 없었으나 속세 바깥의 이름난 산에서 한나절 신선이 되는 것은 나도 할 수 있었다. [俄傾白雲捲盡, 山容露出, 有若韓公默禱, 荊雲自開, 無乃山靈迎而戲之, 欲使我離塵去俗, 而乘彼白雲上耶. 雖頃刻之間, 能乘雲御風, 身遊於恍惚杳冥之中, 與蟬蛻塵殼, 羽化飛昇者同, 則雖不能呼吸風露, 度世長年, 而物外名山, 半日登仙, 則吾亦能之矣.]”

은둔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신선세계에 대한 동경과 갈망을 간직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 정식은 구정봉에서 내려와 용암사에 도착한다.

날이 저물 시간이어서 모두 끝까지 살피지 못하고 좁게 난 돌길을 따라 내려왔는데, 바로 이른바 龍巖庵이었다. 겨우 암자 문에 들어오니 큰 호랑이 소리가 따라 들려왔다. 암자의 승려가 깜짝 놀라 말하며 저녁에 도착함을 책망하였다. 승려가 말하기를, “예전에 보도존자란 분이 있었는데, 바로 도선 국사 이전의 신승으로 이 암자를 세운 사람입니다. 암자 아래 석굴이 신승이 금돼지를 키우던 곳이라고 하는데, 왼쪽 끝에 바위가 있고 바위 위에 용이 입을 벌린 것 같은 돌이 있고 입 아래에 용의 여의주 같은 모양의 둥근 돌이 있습니다. 때문에 용암암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⁴³⁾

용암사에 대한 이 기록은 많은 사실을 담고 있다. 보도존자의 실체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그의 기록에 의한다면 용암사는 道岬寺가 세워지기 이전에 창건된 절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월출산에 호랑이가 살고 있었다는 사실, ‘용암사’라는 이름의 유래, 암자 아래 있는 ‘金猪窟’이란 지명이 보도존자가 금돼지를 키우던 굴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는 九井峯을 둘러보는 것을 끝으로 월출산에서 내려와 백운동을 방문한다. 백운동을 세운 사람에 대해서는 ‘李注書’라고 기록해 두었을 뿐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위치가 강진에 속하며 流觴曲水가 존재한다는 사실, 문 밖 바위에 ‘백운동’이라고 쓰여 있는 점에서 백운동 별서 정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⁴⁴⁾ 그리고 ‘주인이 이미 떠나 추녀와 섬돌

43) 鄭栻, 『明庵集』, 卷5, 「月出山錄」, “遂與一行相笑而罷, 于時日暮, 未盡窮探, 隨下一條石逕, 則有所謂龍巖庵, 纔入菴門, 大虎隨呼, 菴僧驚報, 責其暮來, 僧曰, 古有寶道尊者, 乃道洗前神僧也, 創立此庵, 而庵下石窟有神僧養金猪處云, 左邊有巖, 巖上有石如龍開口, 口下有一圓石, 狀若龍珠, 故名之云, 且有露積峰, 彌勒峰, 觀音峯, 地藏峰, 香爐峰, 毗盧峰, 擎天臺, 三仙臺, 石角巖, 巖立立天邊, 余願得一木枕, 以表名山之物, 則老僧覺密與以香木一塊.”

44) 백운동 별서 정원은 조선시대 처사 이담로가 조성한 곳으로 현재 강진군 성전면에 위치해 있다. 백운동 정원은 1756년 이담로의 손자인 이언길이 가족을 데리

은 황폐해지고 무너졌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백운동의 주인을 만나지는 못하고 다시 여정에 오른다.

정식의 유산기 속에는 월출산에 대한 내용 뿐만 아니라 그가 진주에서 영암까지 오고가는 과정에서 만난 많은 명승지와 사찰, 유적들에 대한 기록도 담겨 있다. 앞서 밝힌바 대로 영암으로 오는 길에는 순천부에서 지방 이수광, 창해 허격, 한훤당 김굉필 등의 자취를 둘러보았고, 선암사 승선교의 아름다움, 송광사의 내력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였다. 그가 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그가 진주로 돌아가는 길에 순천 낙안부를 지나며 효자 宋文瓘의 旌閭碑를 마주하는 장면이다. 그는 이 정려비의 내용을 그대로 유산기 속에 담아두었다.⁴⁵⁾ 그리고 이 비문을 읽은 뒤 절을 올리고 자신도 모르게 공경심이 일어났다고 했다. 여기에서 송문찬의 효행을 길이 전하려는 그의 의도가 엿보이며, 유람을 하면서도 선비의 자세를 잃지 않으려 했던 정식의 유학자다운 면모가 다시금 드러난다.

鄭弼이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월출산 유람을 감행하고 이를 유산기로 남겨놓은 덕분에 도갑사 방면 이외에 또 다른 월출산 유람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봉우리들을 오르는 장면을 실감나게 묘사하는 것 이외에도 월출산과 관련된 전설들을 기록해 둬으로써 그 가치가 있다. 특히 정

고 이사한 이후에야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45) 鄭弼, 『明庵集』, 卷5, 「月出山錄」. 10일에 낙안 고을을 지나가니, 길옆에 효자 宋文瓘의 旌閭가 있었다. 그 記文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공의 부친이 전염병에 걸려 숨이 막혀 이미 다시 살아날 희망이 없었다. 공은 그때 여섯 살이었는데, 어머니에게 일러 말하기를, ‘밤에 꿈을 꾸었더니, 머리가 허영계 센 노인이 말하기를, 「네가 손가락의 피를 내어 너의 아버지 입에 넣으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시험해 보겠습니다.’라 하고, 손가락을 베어 피를 입에 흘려 넣었더니 바로 살아났다. 그리하여 이십여 년 더 생존했다.” 그 조카도 그 아버지를 위해서 피를 흘려 넣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고 기문 끝에 아울러 기록되어 있었다. 바라보고 절하니 나도 모르게 공경심이 일어났다. [十日過樂安府, 路傍有孝子宋文瓘之閭. 其記文曰, 公之考邁癘氣塞, 已無回生之望, 公時年六歲, 謂其天只曰, 夜夢有白頭翁曰, 汝以指血垂汝父口, 則回生云, 吾可試之矣, 斷指垂血卽甦, 因延二十餘年, 其侄亦有爲父垂血得甦者, 並錄于記末, 瞻揖不覺起敬.]

식의 유산기는 현재까지 발견된 18세기 유일한 작품으로서 17세와 19세기 월출산의 역사를 이어주는 매우 중요한 기록이라 할 수 있다.

6. 역사 · 문화체험의 공간, 월출산 : 宋正熙의 「遊月出山記」

宋正熙는 조선 후기 문신으로, 蔭職으로 공조참판에 이르렀으며, 파주목사, 나주목사, 보은군수 등을 지냈다. 「遊月出山記」는 그가 나주 목사의 신분으로 당시 영암 군수였던 이규안과 함께 월출산에 올랐던 기록이다. 그가 월출산을 유람한 시기는 1864년 초겨울로 추측된다. 그의 「遊月出山記」에는 “금성(錦城 나주)으로 다시 부임한지 다섯 달이 지난 초겨울 신미일에 낭주(郎州, 영암)로 출발했다. 임신일에 영암군수와 함께 녹동서원에 참배하였다.”⁴⁶⁾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가 처음 나주목사로 부임한 것은 1863년 7월이다. 하지만 이듬해 1월 稅米船 침몰 사건으로 인해 당시 영암군수였던 이규안과 함께 고초를 겪는다. 하지만 1864년 4월 임임되어 다시 나주목사로 머물게 된다.⁴⁷⁾ 그가 ‘다시 부임했다’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임임됨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遊月出山記」의 마지막 부분에 “금년 여름에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게 되어 장차 숙원을 이루지 못할 것 같았다. (중략) 무릇 사람이 하고자하는 바를 하늘은 반드시 이루게 해준다. 혹 내가 다시 부임하지 않았다면 어찌 금일의 절당을 이룰 수 있었겠는가.”⁴⁸⁾라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유람이 1864년의 일임을 알 수 있다.

宋正熙의 월출산 유람은 鹿洞書院에서부터 출발한다. 이곳은 道岬寺로부터 20여리 떨어진 곳으로 그가 월출산에 오르기 전 일부러 이곳에 들렀다는 사실은 그의 유람이 가진 성격과 깊은 관련이 있다. 녹동서원은

46) 宋正熙, 『南遊錄』, 「遊月出山記」, “再莅錦城之粵五月, 初冬辛未作朗州行, 壬申與主倅往拜鹿洞書院. 院在西門外, 據月出之東.”

47) 『承政院日記』, 高宗 1年(1864) 1月 20日; 4月 17日.

48) 宋正熙, 『南遊錄』, 「遊月出山記」, “及今夏往歸, 將莫遂宿願…夫人之所欲, 天必從之, 倘余非再莅, 則豈能成今日之跌宕也.”

1630년 存養祠라는 이름으로 건립된 후 1713년에 '鹿洞'이라는 사액을 받았다. 창건 당시 崔德之를 배향하다가 1665년에 최덕지의 손자인 崔忠成, 1695년 金壽恒, 1711년에 金昌協을 추배하여 4위를 모시고 있다. 宋正熙는 「遊月出山記」에 이와 같은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였으며, 녹동서원의 강당에 걸린 시문들의 지은이를 모두 나열하였는데, 대부분 사육신의 이름이라는 사실이 눈에 띈다.⁴⁹⁾ 그의 이러한 서술 태도는 이후 사적을 대하는 자세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이어 월출산의 첫 방문지인 道岬寺에 대해서도 '月出山道岬寺'라는 글씨가 세조의 어필이었음을 道岬寺 승려의 입을 통해 확인하였고, 당시 道岬寺가 화마를 입어 절의 모습이 불품없었음을 기록하였으니,⁵⁰⁾ 이를 통해 道岬寺의 역사를 한 줄 더 추가할 수 있게 되었다.

상견성암을 향하여 조금 앞으로 나아가니 오른쪽 기슭에 작은 암자가 있었다. 그 밑에는 물이 돌다가 두어 길 밑에 있는 돌로 떨어졌다. 가마에 앉아 구경하며 또 수십 보를 가니 큰 비석 하나가 나타났다. 이두와 귀질을 갖추고 있었고 양옆에는 용이 새겨져 있었다. 白軒 李景奭공이 駢儷文으로 道洗의 사적을 지은 것을 상서 오준이 쓴 비문이 있었고, 수북 김광옥이 전액을 새겨놓았다. 음기에는 여러 유명한 재신들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있었는데, 청음, 신재 두 선생과 여러 이름들도 크게 새겨 있었다.⁵¹⁾

위의 내용은 道岬寺道洗國師守眉禪師碑에 대한 宋正熙의 기록이다. 이

49) 宋正熙, 『南遊錄』, 「遊月出山記」, “祠崔烟村, 金文谷兩先生, 配以金農巖, 崔山堂兩先生. 講堂揭李公芮及李樛軒, 朴忠正, 成忠文, 李忠簡, 柳忠穆, 河忠烈, 及金文谷, 金退漁, 李三山, 諸先哲詩文.”

50) 宋正熙, 『南遊錄』, 「遊月出山記」, “行二十里, 至道岬寺, 外門額, 月出山道岬寺. 入天王門, 僧云 ‘光廟御筆’ 寺舊宏麗, 近被燹而只佛殿及一禪寮小休禪室.”

51) 宋正熙, 『南遊錄』, 「遊月出山記」, “向上見性菴少前, 而右麓有小菴. 下漚石溜激射數仞, 坐輿觀玩. 又數十步, 而穹碑, 具螭頭龜趺, 兩傍雕鏤龍. 文白軒李相公, 以儷文撰道洗事蹟, 吳尙書竣書, 金水北光煜篆, 有陰記, 而列刻諸宰名, 淸陰慎齋兩先生, 及諸名碩俱載書.”

비는 1653년에 세워진 것으로 통일 신라 때 승려인 도선 국사와 조선 시대 승려 수미 왕사의 행적과 비의 건립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비석이다. 다른 작가들이 이 비를 보며 도선국사를 떠올렸다면, 宋正熙는 이 비 자체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비의 외형을 자세히 묘사했으며 비문의 글씨를 쓴 주인공들을 기록해 두었다. 사적을 대하는 宋正熙의 기록 태도가 다시금 드러나는 대목이다.

상견성암 뜰의 섬돌이 끝나는 곳 아래로 북쪽을 향해 우뚝 서 있는 벼랑이 있었는데 가로 두 줄로 '千巖競秀, 萬壑爭流'라고 새겨져 있다. 바위 옆면에는 '崇禎三丁丑仲冬洪御史'라고 쓰여 있는데 홍어사는 바로 洪獮漢이라고 한다.⁵²⁾

도갑사 위쪽에 있는 상견성암에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바위가 우뚝 서 있다. 그리고 바위에는 '千巖競秀, 萬壑爭流'가 새겨져 있다. 이는 풀나라 顧愷가 會稽의 아름다운 산수를 표현했던 말로, 월출산이 그만큼 아름다운 곳임을 대변해주는 글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宋正熙의 기록 중 "崇禎三丁丑仲冬洪御史"라고 쓰여 있는데 홍어사는 바로 洪獮漢이라고 한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 승정 3년은 1630년(인조8)에 해당하는데 이때는 홍인한이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이다. 다만, 홍인한이 1757년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했는데 이때가 정축년임은 확인된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한 홍인한이 월출산에 방문하여 이 바위에 기록을 남긴 것으로 추측된다.

계유일에 홀로 九井峯으로 향했는데, 높고 비탈져 매우 험했기 때문에 가마를 두고 걸어가기도 했다. 중이 산 정상의 석탑과 산허리에 있는 석탑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이 곳은 모두 폐사지입니다. 절은 산허리에 있었는데, 바로 용암사의 터입니다"라고 하였다.⁵³⁾

52) 宋正熙, 『南遊錄』, 「遊月出山記」, "庭砌斗絕下, 有陡壁特立向北, 橫刻兩行, 千巖競秀, 萬壑爭流, 左傍書崇禎三丁丑仲冬洪御史(이하결)洪御史, 即洪相獮漢云."

53) 宋正熙, 『南遊錄』, 「遊月出山記」, "癸酉獨向九井奉, 峻阪絕險, 或捨輿而步, 僧指峰頭

상견성암을 둘러본 후 이규안은 일이 있어 먼저 돌아가고 宋正熙 홀로 九井峯으로 향한다. 그리고 두 개의 석탑을 만나게 되는데, 이는 앞서 언급된 용암사 3층 석탑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기록을 통해 宋正熙가 월출산에 올랐을 당시 이미 용암사가 폐사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용암사는 고려시대에 창건된 절로 알려져 있는데, 鄭暉의 「月出山遊山記」를 통해 임진왜란이 끝나고 다시 지어졌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鄭暉이 월출산을 올랐던 당시에는 30여명의 승려가 머물고 있었고, 金兌一이 올랐을 때는 10명의 승려가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그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鄭弼의 「月出山遊山錄」에는 구체적 인원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그가 용암사에 도착했을 때 맞이해주는 승려가 있었다는 사실에서 절이 폐사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1864년 宋正熙가 월출산에 올랐을 때는 용암사가 사라진 뒤였던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용암사가 폐사된 시기는 1725년~1864년 사이로 보인다. 추후 이 기간에 해당하는 기록이 발견된다면 좀 더 정확한 시기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宋正熙의 遊山記를 통해 우리는 월출산에 대한 다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월출산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에 있는 정자나 서원 등을 방문해 그곳의 역사도 기록해 두었으며, 자신의 둘러본 명소에 대해 가능한 많은 정보를 기록하려 하였다. 전남의 장엄한 형세와 선현들의 유적을 살펴보았다는 그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의 유람은 월출산의 역사를 기록하고자 하는 작업이었다.

7. 위정척사 운동의 확산을 꿈꾸다: 宋秉璿의 「遊月出天冠山記」

宋秉璿은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위정척사 사상가로 송시열의 9대손이다. 고종이 다양한 관직을 내리며 끊임없이 곁에 두고자 하였으나 모두

石塔, 及峰腰石塔, 曰, '此皆廢寺址, 而在峰腰者, 即龍巖寺址'云."

사양하고 벼슬길에 나가지 않은 채 평생을 저술과 강학에 힘썼다. 그러다 1905년 11월 일제가 을사조약을 강제 체결하고 국권을 박탈하자 두 차례의 '請討凶賊疏'를 올리고 을사조약에 대한 반대운동을 계속 전개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해 음력 12월 30일 자결하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유람을 좋아하여 계룡산, 금오산, 금강산 등 이름난 산과 지역들을 두루 유람하였다. 하지만 호남지역의 산들을 유람하지 못함을 아쉬워했다. 그러다 1869년 지리산 유람을 시작으로 서석산, 변산, 덕유산 등 호남 명산들에 대한 유람을 시작한다.⁵⁴⁾ 그리고 이 체험을 유산기로 남겨 두었다. 宋秉璿은 호남 지역의 산에 매우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그가 남긴 遊山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宋秉璿이 남긴 遊山記는 모두 13편인데, 그 가운데 호남지역 산들을 유람하고 남긴 遊山記는 7편이나 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⁵⁵⁾ 그 중 「遊月出天冠山記」는 宋秉璿이 여러 선비들과 함께 월출산과 천관산을 돌아본 후 지은 기록이다.

송병선의 월출산 유람은 1898년 3월에 이루어진다. 그는 호남의 산수는 거의 다 보았으나 월출산과 천관산을 감상하지 못함을 마음의 빛으로 여기다가 축성산에 있는 선영을 살피러 가는 것을 계기로 유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⁵⁶⁾ 그가 월출산을 방문했던 1898년은 흥선대원군이 사망한 해이자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만민공동회가 열렸던 해이다. 즉, 조선이 변화의 갈림길에 직면하여 혼란이 깊어져 가던 시기이며 외세의 침략이 더욱 활개를 퍼던 때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정척사 사상에 투철했던 宋秉璿

54) 宋秉璿, 『淵齋集』, 卷21, 「智異山北麓記」, “余少好遊, 方內名勝, 略約已觀, 而獨於湖南未也. 歲己巳大壯之月, 遂行到南原, 訪安戚景洪鍾龜, 景洪盛說智異北麓, 余聞之, 不覺爽然, 約友時容, 時默同往.”

55) 『淵齋集』에 남아있는 宋秉璿이 남긴 遊山記는 호남지역을 대상으로 한 「智異山北麓記」, 「瑞石山記」, 「白巖山記」, 「兜率山記」, 「邊山記」, 「德裕山記」, 「遊月出天冠山記」 7편, 영남지역을 대상으로 한 「黃岳山記」, 「修道山記」, 「伽山記」, 「錦山記」, 「眞菴山記」 5편, 충청지역을 대상으로 한 「遊金烏山記」 1편으로 총 13편이다.

56) 宋秉璿, 『淵齋集』, 卷22, 「遊月出天冠山記」, “余於湖南山水, 遊歷殆遍, 而月出天冠, 惟有未償之債, 故歲戌暮春, 乃因省楸之行”(하략)

의 월출산 유람이 단순한 유람이었을리 만무하다. 이는 그의 遊山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중재 衛玉 秉瑗과 鳴仲 蔡鳳瑞, 穉章 安成煥, 子商 朴起震, 允範 金在洪, 聲哉 金始中, 馨遠 呂肇淵 등 여러 사람들과 전라도 戊山에서 모이기로 약속하니, 윤 3월 6일 기미였다. 막 떠나려는데 公範 吳錫烈, 乃玉 李敬純, 翼仲 宋鴻도 따라왔다. (중략) 敬文 金漢穆 및 그의 친적 선비 安俊植과 함께 금성산을 지나고 형산진을 건너 낭주읍으로 들어갔다. (중략) 구불구불하게 西湖를 따라 올라가다가 비 때문에 玄氏의 三碧亭에서 머물렀는데, 汝恩 安澤煥, 亨三 尹滋鉉, 季玉 安暢煥이 앞뒤로 따라왔다.⁵⁷⁾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의 기록에는 여타 遊山記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유람에 동행한 많은 이들의 이름이 보인다. 그리고 그는 월출산에 가는 길에 먼저 고부에 있는 의성 김씨의 재실인 만중재에서 향음주례를 올렸고, 도중에 蘆沙 奇正鎭의 제자 金祿休를 방문한다. 그리고 월출산의 주인이라고 묘사한 允彥 朴寅相, 明執 朴鎔相 중형제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월출산을 내려간 후 현씨의 삼벽정에서는 선현의 유묵첩을 감상하였고, 백련사에서는 동행한 선비들과 경전을 낭송하기도 하였다. 유람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보성의 우산 목미암에서 예를 행했고, 순천 모후산 자락에 있는 초연정에서는 강학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곡성 땅에 들러 안 문성공의 초상에 우러러 절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으로 「유월출천관산기」는 끝이 난다.⁵⁸⁾ 유산기에 그의 유람에 동행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지역

57) 宋秉璫, 『淵齋集』, 卷22, 「遊月出天冠山記」, “與三從弟衛玉 秉瑗, 及蔡鳴仲 鳳瑞, 安穉章 成煥, 朴子商 起震, 金允範 在洪, 金聲哉 始中, 呂馨遠 肇淵 諸君. 約會於瀛洲之戊山, 閏三月六日己未, 將發, 吳公範 錫烈, 李乃玉 敬純, 宋翼仲 鴻 亦從.(중략) 金君敬文 漢穆, 與其族士安 俊植. 聯筇過錦城山, 渡滌山津, 入朗州邑.(중략) 逶迤西湖, 滯雨於玄氏三碧亭, 安汝恩 澤煥, 尹亨三 滋鉉, 安季玉 暢煥, 先後追到.”

58) 宋秉璫, 『淵齋集』, 卷22, 「遊月出天冠山記」, “보성의 우산에 도착하여 목미암에서 습례하고 모후산으로 들어가 조씨의 초연정에서 강학하고 곡성 땅에 들러 안 문성공의 초상에 우러러 절하였다. 다음날 기축일에 집으로 돌아와 다만 그 처

유지의 집안을 방문한 사실, 그리고 여러 선비들과 강학을 진행했다는 여타의 내용들은 그의 유람이 단순히 명산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세력 규합의 일환이었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宋秉璿은 평생 일제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 뜻이 같은 사람들을 모으고 제자를 양성하는데 힘썼다. 그래서 유람들이 모이는 자리라면 어디든지 찾아가 강회를 열고 자신의 뜻을 피력하였다. 1867년 옥천 이지당에서의 강회 활동을 시작으로 1905년 사망 전까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유람들과의 접촉을 통해 위정척사 운동의 여론 확산을 도모하면서 문인들을 규합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다. 월출산 유람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그의 월출산 유산기는 호남의 대표하는 인물들을 만나 교류하고 선현들의 행적을 좇아 유람하면서 이를 통해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조선을 지켜보려 했던 송병선의 의지가 엿보이는 기록이라 하겠다.

IV. 遊山記에 구현된 月出山の 이미지

1. 기암괴석의 산

월출산은 천황봉을 중심으로 산 전체가 수석의 전시장이라 할 만큼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리산, 무등산, 조계산 등 주변의 산들이 대부분 흙산인데 비해 월출산은 숲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바위산인 것이다. 따라서 월출산 유산기 속에는 산의 이러한 특징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인상적으로 바라보았던 작가들의 기록이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태일은 월출산에 오르기 전에 산을 바라보며 그 형상을 “사람이 선 듯, 혹은 거북이가 엮드린 듯, 혹은 모자를 쓴 것 같고, 혹은 아이를

음과 끝을 기록하였다.[到寶城之牛山, 習禮於木美菴, 入母候山, 講學于趙氏超然亭, 過谷城地, 瞻拜安文成公遺像, 明日己丑, 歸家, 聊以記終始焉.]

업은 것 같고, 혹은 날짐승처럼, 혹은 길짐승처럼, 혹은 병풍을 친 듯, 혹은 창을 쫓은 듯하다”⁵⁹⁾고 하였다. 또 정식은 “온 산이 모두 돌이었는데, 바위와 돌의 형상이 기이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어느 것은 나는 새 같고, 어느 것은 달리는 짐승 같았으며, 사람이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중이 앉아 있는 것 같기도 하였다. 마주하여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짐을 지고 가는 것 같기도 하였다. 쉬는 듯, 돌아보는 듯, 칼인 듯, 창인 듯, 깃발인 듯, 바둑알을 쌓아 놓은 듯, 둥근 구슬인 듯 모두 이름 붙여 형상화할 수 없을 정도였다.”⁶⁰⁾고 하였다. 송정희는 “죽순을 뽑아놓은 것 같은 모양도 있고 옥을 깎아 놓은 것 같은 것도 있다. 신선과 부처가 돌로 변화해 나타난 것 같기도 하고 용과 뱀이 웅크려 앉아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누대가 층층으로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성곽이 둘러 있는 것 같기도 하여 그 모습을 형용할 수 없었다.”⁶¹⁾라고 하였다. 정상, 송병선, 허목 등 다른 유산기 속에서도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월출산의 모습에 대해 묘사한 부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월출산에 오른 작가들의 눈에 가장 먼저 비친 산의 이미지는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바위 산’이라는 점이었다. 그리고 이 기암괴석들을 다른 사물에 비유하여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형상화 하여 유산기를 읽는 사람들에게 월출산의 면모를 생생하게 전해주고자 하였다.

59) 金兌一, 『蘆洲集』, 卷3, 「遊月出山記」, “蓋其狀或如人立, 或如龜伏, 或如戴帽, 或如負兒, 或如飛禽, 或如走獸, 或如列屏, 或如種戟.”

60) 鄭弼, 『明庵集』, 卷5, 「月出山錄」, “一山皆石而巖形石狀, 無不奇怪, 或如飛禽, 或如走獸, 如人之立, 如僧之坐, 如偶而語者, 如負而行者, 如懸如顧如鈎如鎗如戟, 如累碁如圓珠, 不盡名狀.”

61) 宋正熙, 『南遊錄』, 「遊月出山記」, “蓋是山巨廻于東北, 頂戴純石, 或連附, 或離列, 類抽筍, 類東玉仙, 佛之現化也. 龍虎之蹲踞也, 似樓臺之層臺, 似城郭之周, 遭不可名狀而如往, 而復欲起而偃, 回抱爲三十里之遠, 而峙爲巨石二朶, 高可數十餘丈, 廣數十步而相屬而爲勝.”

2. 문화재의 보고

월출산에는 도갑사, 무위사 등 지역을 대표하는 유명한 사찰들이 많이 있으며, 왕인박사와 도선국사의 탄생지가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많은 유적들이 존재한다. 월출산 유산기 곳곳에는 이 유적들과 관련된 기록들이 보인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도갑사 등 불교와 관련된 유적이다. 송정희는 도갑사에 있는 ‘도선국사수미선사비’에 대해 그 모양과 비문을 적은 사람들의 이름을 상세히 기록해 두었다.⁶²⁾ 김태일 또한 “비석의 높이는 한 길이 넘고 넓이는 몇 자나 되었으며 귀보도 대단히 높고 컸다. 비석 아래에서 바라보니 그 형세가 심히 장대하였다. 비문은 상공 이경석이 지었고 새긴 글자는 판서 오준의 글씨였다.”⁶³⁾ 라고 기록하였으며, 도갑사에 대해서도 “절은 월출산의 서쪽 고개 아래 평지에 있어서 위치가 그다지 외지지 않았고 그다지 기이하지도 않았으나 누각이 많아 중국에까지 그 이름이 알려져 불교도가 칭찬하고 고관들이 거쳐 간 곳이다.”⁶⁴⁾라고 하였다. 또, 허목은 당시 도갑사에 보관되어 있던 승려 學祖의 유물과 도갑사의 입석인 국장생과 황장생, 구림마을의 埋香 풍속을 담았다.⁶⁵⁾ 또 용암사의 석탑과 마애불에 대해 정상은 “걸어서 서쪽 산마루를 넘어가니 5층 석탑과 동탑이 마주 보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의 큰 벼랑에는 미륵상이 새겨져 있는데 매우 기이하였다.”⁶⁶⁾ 라

62) 각주 52) 참고

63) 金兌一, 『蘆洲集』, 卷3, 「遊月出山記」, “碑石高可一丈餘, 廣可數尺許, 龜趺亦甚高大, 從下望之勢甚壯. 碑文則李相公景奭所撰, 而刻字則吳判書竣筆也.”

64) 金兌一, 『蘆洲集』, 卷3, 「遊月出山記」, “寺在月出之西嶺下平地, 境不甚僻, 亦不甚高, 而樓閣之多, 名於中國, 祇林之所稱道, 冠蓋之所經過.”

65) 許穆, 『記言』卷28, 「月嶽記」, “道岬下, 立石刻國長生, 其下皇山. 又立石刻皇長生, 父老傳說道誥爲之. 萬曆中, 元帥西平公出巡湖南, 過此掘國長生, 其下刻石標四座, 石深入, 欲發之, 以爲徒無益, 復埋之. 鳩林又有立石, 西湖石浦, 又有立石, 刻曰某年某月埋香, 其年月字, 漫滅不可見.”

66) 각주14) 참고

고 기록하였다.

유산기 속에는 불교와 관련된 문화유산 이외에도 월출산 인근 지역의 유적에 대한 기록도 찾을 수 있다. 송병선은 산을 내려와 구림마을을 지나며 그곳이 도선국사가 나고 자란 곳을 밝혔으며,⁶⁷⁾ 정식은 앞서 언급한대로 월출산 아래에 위치한 백운동 정원에 방문하여 이곳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또 송정희는 월출산에 오르기 전 녹동서원에 들러 그곳에 걸린 여러 선현들의 시문을 감상하였으며, 鳩林마을의 會社亭에 대해 소개하였다.⁶⁸⁾

월출산 유산기를 남긴 작가들의 유람 경로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월출산 전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문화유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월출산 유산기를 남긴 작가들이 유학자였기 때문에 불교와 관련된 문화 유적에 대해 상세한 언급을 꺼려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월출산 유산기 속에는 당시 월출산에 남아 있던 사찰과 비석등 문화유산과 인근 지역인 구림마을과 녹동서원, 백운동 정원등에 대한 기록들이 담겨 있어 월출산이 많은 문화유산을 가진 산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전설을 품은 산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월출산은 바위 모양만큼이나 그와 관련된 기이한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온다. 그리고 기이한 바위의 모습이 이름으로 굳어진 경우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動石’이다. 정식은 ‘동석’에 대해 “옛날에는 여기에 세 개의 움직이는 돌이 있었는데, 당나라 사람들이 이 돌 때문에 이곳에서 유명한 사람이 많이 나온다고 여겨 밀어서 떨어뜨렸다고 한다.”⁶⁹⁾라고 기록하였다. 송정희도 동석을 마주하고 동행한

67) 宋秉璠, 『淵齋集』, 卷22, 「遊月出天冠山記」, “下山過鳩林, 是道誼生長處, 而一村藏於竹林, 自外見之, 若無人居.”

68) 宋正熙, 『南遊錄』, 「遊月出山記」, “往鳩林傍湖, 而閭里甚稠, 竹樹密翳, 會社亭, 巋然傑構, 有前輩題詠.”

69) 鄭弼, 『明庵集』, 卷5. 「月出山錄」, “古有三動石, 唐人以為多出名人, 推而下之云.”

중을 시켜 흔들어보게 하고는 '영암'의 이름이 여기에서 유래했음을 밝혔으며,⁷⁰⁾ 정상과 허목 등의 유산기에도 같은 내용이 보인다.

다음으로 보이는 것이 '九井峯'에 대한 기록이다. 구정봉은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동석'과 더불어 월출산의 대표적 풍광으로 소개하고 있는 곳으로 이미 널리 알려진 명소였다. 이곳은 봉우리 정상에 9개의 구멍이 있어 '구정봉'이라고 이름하였으며, 9마리 용이 살았다고 하여 '九龍峯'이라고도 한다. 구정봉에 대한 가장 상세한 기록은 김태일이 남긴 것으로 "봉우리 위에도 봉우리 아래처럼 오목하게 파인 곳이 7개가 있어 전하는 말로는 예전에 구룡이 누웠던 곳이라 하고 일명 구정봉 이라고도 한다는데 이야기가 황당무계하지만 또한 특이하였다."⁷¹⁾라고 하였다. 용암사와 관련된 기록도 보이는데 정식은 "왼쪽 끝에 바위가 있는데 바위 위에 용이 입을 벌린 것 같은 돌이 있고 입 아래에 둥근 돌이 있는데 용의 여의주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⁷²⁾라고 하였고, 정상은 "누대의 남쪽에는 첩첩이 쌓인 바위가 곧장 위로 치솟아 있는데, 마치 늙은 용이 머리를 내저으며 구슬을 희롱하는 것과 같은 모양이었다. 이 때문에 이 암자의 이름이 용암이 되었다고 한다."⁷³⁾라고 하였다. 이처럼 유산기를 통해 월출산이 이름과 관련된 전설과 스토리를 품고 있는 산이며, 그 이야기들이 월출산의 이름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70) 宋正熙, 『南遊錄』, 「遊月出山記」, "稍下數十武, 巨巖五層漸次而低上頭, 是動石, 使僧搖之輒掀, 邑之名以此云."

71) 金兌一, 『蘆洲集』, 卷3, 「遊月出山記」, "及到九龍峯, 峯上下皆石也, 下則盤石長而廣, 石上有二凹處, 小水儲其中, 上則大石陡起作峯, 峯之北有小門, 登之者由此門而入, 峯上亦有凹處如峯下者七, 諺傳昔時九龍所臥之處, 故一名九井峯, 語涉荒誕而亦可異也."

72) 鄭弼, 『明庵集』, 卷5, "遂與一行相笑而罷, 于時日暮, 未盡窺探, 隨下一條石逕, 則有所謂龍巖庵, 纔入菴門, 大虎隱呼, 菴僧驚報, 責其暮來. 僧曰, '古有賣道尊者, 乃道誦前神僧也, 創立此庵, 而庵下石窟有神僧養金豬處云. 左邊有巖, 巖上有石如龍開口, 口下有一圓石, 狀若龍珠, 故名之云.'

73) 鄭詳, 『滄洲先生遺稿』, 卷1, 「月出山遊山錄」, "樓南有壘巖直上, 如老龍裹頭, 弄珠之狀, 故名菴曰龍云."

V. 맺음말

본고에서는 현재까지 밝혀진 7편의 月出山 遊山記를 검토하여 유산기의 작가와 시기, 유산 경로, 유산의 목적, 그리고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리고 작가들이 생각한 월출산의 이미지가 어떤 것이었는지 생각해 보았다.

이 유산기들은 작가 개인의 기록이면서 월출산의 300년 역사를 담고 있는 기록이다. 따라서 시대별 遊山記 비교를 통해 월출산의 역사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에 遊山記에는 등장하지만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지명이 바뀐 곳들을 찾아내는 작업도 의미 있을 것이다. 그리고 動石이나 金猪窟 등에 얽힌 전설처럼 遊山記 곳곳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교육자료로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遊山記를 매개로 여행 콘텐츠를 개발하여 조선시대 선비들이 걸었던 길을 따라 가며 선조들의 감정을 공유해 보는 것도 유산기가 가진 가치를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호남지역 遊山記 연구는 이제 결음마 단계이다. 현재 유산기를 포함한 호남문집 소재 일기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그 결과물이 책으로 발간되었고⁷⁴⁾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과 전남대학교에서도 遊山記를 포함한 기행일기에 대한 번역 작업과 DB화 작업들이 진행중이다.⁷⁵⁾ 이러한 체계화 작업을 바탕으로 앞으로 호남지역 遊山記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고에서 지면의 한계 상 月出山 遊山記를 소개하고 그것이 가진 자료로서의 가치를 살펴보는 정도에 그쳤다. 이후 각각의 작품들이 지닌 문학사적 의의와 작가들의 관점, 유산기 외 월출산을 다룬 문학 작품과 비교 연구 등이 더 필요할 것이다. 더 나아가 월출산 유산기 이외 호남지역 유산기 전체를 관통하는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74) 김미선, 『호남문집소재 일기류 자료』, 경인문화사, 2018

75) 연구 결과물은 '호남기록문화유산(www.memoryhonam.co.kr)'에 탑재되고 있다.

〈參考 文獻〉

1. 원전자료

- 金昌協, 『農巖集』 (한국문집총간 162집).
金壽恒, 『文谷集』 (한국문집총간 133집).
金兌一, 『蘆洲集』 (한국문집총간 속 43집).
宋秉璿, 『淵齋集』 (한국문집총간 329집).
宋正熙, 『南遊錄』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鄭 詳, 『滄州先生逸稿』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鄭 軾, 『明庵集』 (한국문집총간 속 65집).
許 穆, 『記言』 (한국문집총간 98집).
『承政院日記』

2. 단행본

- 김미선, 『호남문집소재 일기류 자료』, 경인문화사, 2018.
박정원, 월간 『산』 577호, 2017.
심경호, 『산문기행 : 조선의 선비, 산길을 가다』, 이가서, 2007.
이혜순 외, 『조선 중기의 遊山記 문학』, 집문당, 1997.
정치영, 『사대부, 산수유람을 떠나다』,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3. 논문자료

- 김대현, 김미선, 「호남지방 일기자료 연구의 현황과 과제」, 『호남문화연구』 58,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5.
김순영, 「무등산 유산기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김순영, 「연재 宋秉璿의 호남 지역 명산 인식에 대한 연구」, 『어문논총』 제31호,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17.
김순영, 「호남 유산기의 자료적 특징」, 『국학연구론총』 제13집, 태민국학연구원, 2014.

이경화, 「월출산 용암사지 마애불의 사적 해석」, 『한국사상과 문화』, 제40집, 한국사상
문화학회, 2007.

4. 기타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Abstract

A General Study on Wolchulsan(月出山) Yusangi(遊山記) in Joseon dynasty

Sa Gyeong-hwa*

Yusangi is a literary record by a writer who went directly to the mountain after he visited the mountain. And in yusangi there is a variety of information about the artist's world view, values, and mountains and regions. For this reason, yusangi studies have been studied in various areas. However, the object and scope of the study are concentrated on specific mountains. Therefore, this study first examined the Wolchulsan yusangi for the purpose of expanding and diversifying the scope of yusangi research.

The number of Wolchulsan yusangi reviewed in this paper is seven in total. Jeong-sang's 『Wolchulsanyusanlog(月出山遊山錄)』 is the first Wolchulsan yusangi which contains concrete records of Yongam Temple. Heomog's 『Wolaggi(月嶽記)』 records the names of peaks, hills, and rocks of Wolchulsan which are not present.

Kim-changhyeob's 『Deung-Wolchulsangujeongbong-gi(登月出山九井峯記)』 is a work that expresses only the process of coming up to gujeong-bong very realistically, and the writer's writing power is outstanding. Kim-taeil's 『Yu-wolchulsangi(遊月出山記)』 is a work that allows the scholars of the Joseon Dynasty to ascend to the mountains and see how they enjoyed it. Jeong-sig's 『Wolchulsanlog(月出山錄)』 is the only Wolchulsan yusangi built in the 18th century. It was a record that shows the process of starting from Jinju and arriving at Wolchulsan in detail, and it was showing that the route to Wolchulsan was diverse. Song-jung hui's 『Yu-wolchulsangi(유월출산기)』 records objective facts about Wolchulsan and Wolchulsan neighboring area and this is an important record to know the history of Wolchulsan and its surroundings. Song-byeong sun's 『Yu-wolchulcheongwan sangi(遊月出天冠山記)』 was a record of the desire for the diffusioning of 'wijeongchuksa(衛正斥邪)', while keeping the basics of yusangi.

Wolchulsan yusangi, which we have discussed above, contains factual and objective

* Ph.D.Candidate, Sungshin University / sanomi@daum.net

information about mountains because the artist directly recorded the mountain after he ascended the mountain. In addition, the fact that it contains various aspects of yusan in the Joseon Dynasty is also worth the data. Based on this, we will continue the in - depth study on wolchulsan and further study Yusangi to review the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 of Yusangi, and hope that the value of Yusangi will increase.

【Key words】 Wolchulsan-yusangi(月出山遊山記), Yuwolchulsangi(遊月出山記), Heo mog(許穆), Jeong sig(鄭弼), Song byeong-son(宋秉璿)

투고일 : 5월 20일, 심사완료일 : 6월 18일, 게재확정일 : 6월 18일